

모국어습득과정에 입각한 효율적인 외국어교수방안

고 영 진
(대전대학교)

Ko Young-Jin. 1999. An Effective Foreign Language Teaching Based on the Process of Mother Tongue Acquisition, *Linguistics*, 7-1, 305-324. Until three or four years ago, the supreme goal of our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was to have a perfect grammatical knowledge. And at that time all of us only began to study English after graduating elementary school. However, as we already know from the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the function of the human language acquisition device decreases its ability almost entirely by 13 or 14 years old. According to this theory, our past English education made impossible to acquire linguistic ability perfectly. Thus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learning English at an early age and learning English according to the process of mother tongue acquisition. And the teachers, when they teach English based on the suggested alternatives, must have no attention to teaching the students but only perform an assistant role for the students to learn English, such as giving them many chances to hear English sentences, making the circumstances for them to converse in English, and so on. (Daejin University)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정상인이라면 언어에 관한 한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한다던가 하는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도대체 언어란 무엇이기에 이처럼 누구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모국어를 아무런 문제없이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언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배울 수 없는 것이므로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인가? 모국어에 관한 한 이와 같은 생각은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국어 아닌 외국어의 경우에는 어떤가? Arthur Sorenson(1967: 670-684)의 남

미토작민들의 언어습득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 유역에는 부족들간에 사용되는 언어가 약 2,000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곳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풍속으로 언어가 같으면 서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한가족 안에 몇 개의 언어가 공존한다. 이와 같은 풍속 때문에 그들은 한 가족 안에서 몇 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지만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외국어와 모국어의 습득과정을 서로 각기 다른 별도의 과정으로 보아 모국어는 교육하지 않아도 되고 외국어는 교육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의문이 된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본 교에서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습득과정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고 마치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의 그 과정을 외국어교육에 적용해 좀더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교육하자는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언어능력과 언어습득이론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교육하여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능력은 무엇이며, 인간은 이와 같은 능력을 어떤 과정을 통해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효율적인 외국어교육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 언어능력

철학적인 배경과 심리학의 배경에 따라 인간의 언어 능력은 크게 두 경향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경험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언어에 있어서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떠한 능력도 없으며, 다만 후천적으로 언어적인 자극을 받아 그것을 습득함으로써 언어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이성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인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언어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의 능력에 관한 두 가지의 다른 견해는 결국 인간이 언어능력을 갖게되는 과정인 언어습득에 관한 두 개의 각기 다른 이론을 탄생시켰다.

2.2 언어습득이론

Skinner(1957)의 행동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언어습득이론은, 출생한 때의 아이는 세상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백지상태인데, 여러 강화작용(reinforcement)을 통하여 서서히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길으로 나타나는 언어행위와 이 행위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주목한다. 예를 들어 환경 속의 어떤 사건, 사물을 보고 이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어린이가 시도해서 맞으면 어린이는 칭찬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사건, 사물에 대해서는 같은 언어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Skinner(1957)는 자극-반응-강화-습득으로 정의했으며, 언어행위에서는 뚜렷한 자극 없이도 언어표현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반응행위를 Skinner는 'operant'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언어습득과정은 세 가지 형태¹⁾의 자극-반응-강화-습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주장한 Skinner의 행동주의 심리학에 토대를 둔 언어습득이론은, 언어의 창조적인 측면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어른들로부터 어법에 맞는 말만을 배워서 습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법에 어긋리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다. 또한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말조차도 갑자기 행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설명할 방안이 없다. 또한 인간의 문명이 보잘것없던 시절 즉 원시인으로 살아가던 시절, 인간의 언어는 어휘나 문장 등에 있어서 지금의 언어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했을 것이다. 만일 행동주의 심리학에 입각한 언어습득이론이 타당하

1) (a) 모방반응(echoic verbal behavior): 본래 정상적인 아이는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음가의 차이를 식별하여 소리를 모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런 어린이가 주위 어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어쩌다 비슷한 한 마디를 발성했을 때, 어른들은 대단한 듯이 칭찬 등을 해준다. 이런 칭찬은 강화의 구실이 되고, 그 강화된 것을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질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소리와 같아지게 된다.

(b) 맨드(mand): 어떤 어린이가 뭐라고 증언거렸을 때, 주위의 어른들이 그 말을 '공'으로 듣고 그 어린이가 '공'을 요구(demand)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어린이에게 공을 주면서 그 말을 반복하여 명확하게 들려준다. 어린이는 공을 가진 것이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강화가 되어, 같은 단어를 반복하게 됨으로써 명확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c) 택트(tact) 어떤 대상과 접촉하게 될 때 아이는 으레히 그것을 가리키면서 무어라고 증언대게 된다. 그러면 어른은 강화의 구실로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동시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어 아이가 다음에 그와 같은 대상에 접촉할 때 정확한 이름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면 원시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언어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항상 배워 읽힌 언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는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인지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언어학자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에 관한 어떤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증거로 어린 아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자료에 접한 후에도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은 언어규칙을 내재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언어가 인간 특유의 행위이며 특유의 인지능력, 분류능력, 기타 다른 언어관련 장치가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언어에 관련된 장치를 Chomsky(1957)는 언어습득장치(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 했으며, 이 언어습득장치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소리를 판별하는 능력, 특정한 언어체계만을 인정하는 능력, 언어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경험하는 언어자료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언어체계를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언어습득장치를 가진 인간은 어른들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완벽한 문법을 완성하여 완전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완전히 습득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인지주의 언어습득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언어습득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행하는 언어의 창조적인 면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린이 스스로 언어습득 장치를 통해 습득하는 언어의 문법체계를 완성해 가는 중에 잘못된 말도 하며, 완전히 습득한 문법체계를 통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원시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와 지금의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사이의 엄청난 변화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2.3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위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을 듣기 시작한다. 인간은 이 소리들을 막연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관계된 능력 즉 언어습득장치를 통해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그 소리들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리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정리

된 지식에 의해 말을 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소리를 듣고 분석하는 단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소리를 듣고 분석하고 동시에 정리된 원리에 의해 말을 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자료는 다시 정리하여 계속해서 언어의 원리들을 가다듬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가 완성되면 그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습득은 완성된 것이다. 아직 글자는 모른다 해도 얼마든지 다른 인간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창조된 지식은 글을 통하여 끊임없이 쌓여가고 있다. 그와 같은 모든 축적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또한 활자로 된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글자를 읽히기 시작하며 그 철자를 통해 읽고 쓰게 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익히는 순서를 말함이다. 우리는 남의 글은 철자만 알면 읽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철자만 안다고 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어느 누구나 편지지 한 장을 꺼내 놓고 상대가 누구이든 편지를 써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첫줄에 상대방에 대한 안부를 묻는 등의 인사를 하고 나면 이젠 무엇을 써야하나 하고 얼마나 망설였는지....., 하물며 외국어로 글을 써야 하는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이와 같은 과정과 상황들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언어의 습득과정이 모국어든 외국어이든 듣는 과정에서 출발하여 말하는 과정 읽는 과정 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외국어교육의 현주소 및 미래

본 장에서는 과거의 외국어 교육과 현재의 외국어 교육을 살펴 잘못 되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 볼 것이며, 또한 과거의 외국어 교육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어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미래에는 외국어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1 예전의 영어교육

예전의 외국어 교육은 외국의 자료를 읽고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 졌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과 달리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에서

외국인을 만나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반면에 우리의 과학과 학문은 서구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앞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받아 들여야만 했다. 이와 같은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어서 듣고 말하는 능력을 위주로 교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외국의 우월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담은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외국어의 문법을 이해하여 자료를 번역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것이 사회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문법과 번역을 중시하는 교육이 듣기와 말하기를 등한시하여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완벽한 문법의 이해와 능숙한 번역은 외국어 학습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당시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작금의 사회가 지구촌이란 용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국가와 국가사이의 거리를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해도 서로에게 우월한 과학적 지식을 가르쳐주고 배우기 위해서는 논문이나 책 등의 자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당연히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외국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능력은 문법 번역 교육을 통해 상당부분 습득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예전의 외국어 교육이 단지 그 교수방법이 문법-번역위주의 교육이었고 그 목표가 독해능력의 향상에 두었다는 점이 잘못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교수방법과 목표를 가지고 교육할 때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문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문법을 창조하고 그것에 맞추어 언어를 창조했는가? 아마도 누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어와 문법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그것과 배치되는 방법을 취해왔던 것이다.

예전의 외국어 교육은 문법이 우선 이었다. 언어란 절대적인 문법에 따라 짜 맞추어진 것으로 교육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우리는 문법을 가르치면서 왜 그와 같은 문법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어떤 사물의 이름처럼 당연히 외워야 하는 것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그 문법에 따라 해석하고, 써야 하는 것으로 가르친 것이다. 왜 그렇게 번역하고 써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물을 수도 없는 철칙 그것이 바로 문법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학생들은 그와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언어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으며, 마지못해 따라가는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식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

다. 한마디로 문법은 언어가 창조된 이후에 인간들이 그것의 비밀을 밝혀보고자 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철칙으로 하나의 진리로 가르쳐 학생들로 하여금 창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언어의 법칙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이는 또한 문법 번역식 수업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이 된 것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에서는 우리의 상품을 해외에 팔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또한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쉽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외국인들이 업무상의 이유로 또는 여행을 목적으로 많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외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었다. 드디어 외국어를 듣고 말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또 외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가 바라는 외국어 교육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문법 번역식 교육, 아니 마치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문법을 외우는 식의 교육으로는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는 중학교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란 긴 기간동안 열심히 영어를 배웠는데도 영어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3.2 미래의 외국어교육

사회에서는 외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바란다. 외국어도 하나의 언어이므로 당연히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국어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외국어가 꼭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필요한가에 대해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의 예전의 사회가 필요로 했던 외국의 선진 과학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해하는 데 필요했던,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인가? 아마 누구라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우리의 견해나 정보를 외국에 보내기 위해서 외국어를 잘 읽어 이해하고 쓰는 능력 또한 길러야 한다. 이처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하나의 언어를 교육하자면 그것에 합당한 철학적인 배경과 타당한 이론이 있

어 그것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앞에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철학에 바탕을 둔 언어의 행동주의 습득이론과 인지주의적인 습득이론을 살펴보았다. 두 이론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우리는 인지주의적인 언어습득이론이 더욱 타당한 이론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인지주의 이론이 타당하다 하여 무조건 그것이 지시한 방법대로만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느 일간지에 외국의 어떤 의사의 연구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외국어를 습득한 시기에 따라 그 외국어가 기억되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와 거의 같은 때에 외국어를 습득한 사람, 다시 말해 모국어를 습득하고 있을 나이에 외국어를 습득한 사람은 모국어나 외국어를 할 때 뇌의 동일한 부위가 작용하지만 모국어습득 시기를 지난 후에 외국어를 습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국어를 구사할 때와 외국어를 구사할 때 각기 다른 쪽의 뇌가 작용한다는 관찰의 연구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언어의 교육에 대해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어를 언제 습득했느냐에 따라 뇌의 작용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외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따라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외국어를 교육하는 방법과 모국어 습득기를 지난 후에 외국어를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4. 모국어습득과정에 입각한 외국어교육

앞장에 우리는 과거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영어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교육방법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사회의 여러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수정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방법도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외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이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 외국어를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 할 것이다.

4.1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

우리는 완벽하게 모국어를 습득하여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처럼

완벽하게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던 환경과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면 어떻게 배웠을까를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외국어는 어떻게 습득되는가에 관하여도 살펴 볼 것이다. 모국어의 습득과정과 외국어의 습득과정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에 관하여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하여 외국어 교육방법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

4.1.1 모국어 습득

모국어는 누가 가르쳐주어서 습득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터득한 것인가? 혹자는 언어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이와 같은 생각처럼 만일 인간이 언어를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스스로 터득하여 습득한 것이라면 과연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는 것일까?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 속에 언어습득의 비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말을 하는가? 누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언어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일까? 만일 아무런 지식도 없는 것이라면 그들 말처럼 태어난 후부터의 경험으로 언어를 습득하여 갈 것이다. 하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했던 언어습득은 어린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중에 보이는 창조적인 면을 설명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 행동주의 심리학에 토대를 둔 언어습득은 인간이 언어습득과정에서 보이는 창조적인 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을 충분히 보완 할 수 있는 이론이 인지주의에 바탕을 둔 언어습득이론이다.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한 기간동안 아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위를 살펴보고 울음소리 등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기간이 상당기간 흘러가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와 같은 말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흘리게 된다. 이처럼 주위의 가장 가깝게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언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설피지만 단어들을 연결하여 구, 문장을 구성하기 시작하며 어른들이 쓰는 말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들조차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당기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쓰는 말과 동일한 어법에 맞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언어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일 그와 같은 지식이 없다면 그들은 스스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말을 행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잘못된 말을 하는 단계도 없을 것이고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문장이외의 말은 이해도 즉 들을 수도 없을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옳은 말만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한 그것만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어른 못지 않게 풍부한 언어들을 구사한다. 어른들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말조차도 구사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이 본래 언어에 관련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인지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언어습득이론이 타당한 것이라면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언어습득장치를 갖고 있으므로 언제나 어느 환경에서나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오래 전에 우리는 늑대소년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발견되었을 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말을 알아듣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언어를 습득하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태어난 후 늑대들 사이에서 자랐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언어환경은 늑대들이 내는 울음소리뿐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늑대들이 하는 의사소통수단을 습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외국에 나가 살 경우에 한국어는 하지 못하면서도 그 나라 말은 마치 본래 그 나라 사람이었던 것처럼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언어를 습득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지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언어습득이론처럼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 장치를 갖고 있다 해도 그 아이 주위의 언어적 환경이 무엇이나에 따라 언어습득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은 온통 모국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모국어만이 있으며, 늘 그것을 듣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은 한마디로 24시간 모국어 언어상황이며, 24시간동안 행해지는 모국어를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또한 어느 정도 지나면 언제나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읽고 쓰는 환경 속에서 언어를 습득해 가는 것이다.

언어를 습득하는데 환경만 완벽하다면 언어의 습득에 나이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만일 나이가 언어습득에 영향을 준다면 언어습득에 용이한 나이는 몇 인가?

Dennis & Whitaker(1977)에 의하면 나이가 언어습득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만일 어린아이가 사고로 좌뇌에 상해를 입어 좌뇌가 맡고 있는 언어기능을 상실한다 해도 우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언어습득을 하게 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상실된 언어기능을 우뇌가 대신할 수 없어 정상적인 언어습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릴 때에 좌뇌가 언어습득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언어습득에 관한 좌뇌의 기능을 어느 정도 상실한다 해도 어릴 때에는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우뇌가 대신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습득과 나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언어습득에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Curtiss(1977)는 13.5세에 이르기까지 사람과의 접촉이 전혀 없이 한 동굴 속에서 살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된 말을 전혀 하지 못했던 'Genie'라는 소녀의 언어습득에 관한 연구보고를 했다. 그 소녀는 발견된 후 18세까지 말을 배웠으나 문법적인 구조는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단지 단어를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정도였다는 보고였다. 이는 사춘기 이후의 언어의 습득은 좌뇌의 기능이 쇠퇴하여 우뇌에 의해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언어습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습득이란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절한 시기가 있다. 즉 이 시기는 사춘기를 한계로 하는데, 이 한계연령(critical age)을 넘어서면 비언어적 피질에 의해 습득하기 때문에 분석적인 능력을 요하는 문법구조를 습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모국어는 특정한 신경조직에 토대를 두고, 선천적인 잠재능력에 의해 모국어를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단계와 연관되어 습득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1.2 외국어 습득

여러 학자들(Newmark & Reibel(1968), Cook(1969), Tucker & d'Angleian(1972), Macnamara(1975))이 모국어의 습득이나 외국어의 학습은 같은 심리언어학적인 과정으로 모국어의 습득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에 반대하는 주장 또한 한참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은 언어습득기간이 지난 사춘기인 중학교에서 시작되니,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모국어습득과는 다르다고 본다. 즉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때에는 이미 모국어의 규칙과 단어를 습득한 단계로서 이것이 외국어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국어를 습득할 때에 제시된 자료들은 정리되거나 단계적인 것이 아니지만 외국어의 경

우에는 제시되는 자료들이 잘 정리되고 단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계순(1997:27)은 모국어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아이라면 누구나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능력은 가질 수 있지만 외국어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여러 번수에 달려 있으며 그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외국어 습득의 경우에는 모국어습득과는 달리 그 학습환경이 두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연적인 환경(natural setting)과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교실수업을 통한 인위적인 환경(artificial setting)이다. 전자의 환경에서는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사용하여 사회적인 상호접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제2언어로(as a second language)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환경에서는 외국어의 학습이 거의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모국어의 구사력이 거의 완전하기 때문에 모국어의 언어기호와 외국어의 기호를 따로 따로 배우게 되며 외국어의 의미를 모국어로 바꾸어 생각한 다음에 사물의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 인위적인 환경에서는 목표어를 제2어가 아니라 외국어로서(as a foreign language) 배우게 되니 외국어 사용능력이 배양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인 경우에 그것의 습득은 학습자의 동기와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외국어학습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동기에는 두 유형의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²⁾와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³⁾이다. 도구적 동기는 어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경우이며, 통합적 동기는 외국어학습 자체가 재미있고,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집단과 어울리기를 원하는 경우의 동기이다. 이 두 유형의 동기가 크면 클수록 외국어를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기

2)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서 보통 이와 같은 동기를 갖게 된다. 즉 학습동기가 입학시험, 취직, 유학 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다. 이 동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어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학습의욕도 강하다. 그리고 그 목표달성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학습의욕도 급격히 줄어든다.

3) 외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갖게 되며, 이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어린아이의 경우와 같이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 그 언어를 꼭 배워야 하는 경우에 생기는 동기이다.

를 유발하는 데는 여러 심리요인⁴⁾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적성(aptitude)⁵⁾ 즉 소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여러 학습자간에는 외국어를 더 빨리 잘 배워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동기로 인한 경우가 많으나 적성도 함께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어습득은 연령에 차이가 있고 어릴수록 외국어를 잘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로는 어릴 때에는 모국어습득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가 있으며, 발생기관이 유연하여 자연스러운 발음 습득이 가능하고, 언어습득의 기억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wain(1971)에 따르면 3-5세의 아이들에게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시킨 결과 거의 비슷하게 배웠으며 모국어의 존비법(speech levels)을 구별하는 것과 비슷하게 두 언어의 차이를 알고 쉽게 배우더라는 것이다. 이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 아이는 특수한 기억력을 가지고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고, 또 생리적인 면에서 신경조직이 유연하므로 언어습득을 하는 기능이 완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

이와 같은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이 다르다는 생각은 대부분이 우리 나

4) 첫째, 학습자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미워하거나 좋아함에 따라, 둘째, 특정한 외국어사용에 대한 국가사회의 요망의 정도에 따라, 셋째, 수업시간 중의 교사의 태도와 인격에 따라 성취정도가 달라진다. 특히 이 점에 관하여 Stevick(1974)은 교실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student-centered learning)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습자를 위협하거나 긴장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안정감(security)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Carroll(1953)에 따르면 외국어학습과 관련된 적성에는 (1)소리의 식별능력, (2) 문법적 감각의 예민성, (3)암기력, (4)귀납적 언어습득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첫째의 소리의 식별능력이란 외국어의 소리를 귀로 듣고 무슨 소리인지 식별하고 수초 이상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외국어의 음소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로, 문법적 감각의 예민성은 문법규칙을 알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는 암기력이며 외국어학습에서는 어휘, 구, 문장 등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귀납적 언어습득능력(inductive language learning ability)이란 새로운 문장 속에서 언어의 형식, 규칙 등을 추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6) Macnamara(1971)와 Kennedy(1973)는 연령에서 오는 외국어능력의 차이를 동기와 학습환경에 두고 있다. 나이가 어린 데에도 장단점이 있고 또 사춘기이후의 나이에도 장단점이 있으므로 학습의 효율성을 나이에 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외국어학습환경에 따라 언어사용능력 개발에 차이가 생기고, 또 의욕이 강하고 동기가 높으면 외국어를 잘 배우게 된다고 하며 학습효과를 연령보다 학습 환경과 동기에 돌리고 있다.

라에서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와 다르게 중학교에서나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모국어를 중학교에서 시작한다 해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는 외국어나 모국어나 그것을 습득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연령도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반증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국어 학습을 중학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동시에 외국어도 습득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4.2 외국어교육

모국어의 습득과 외국어의 습득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모국어든 외국어이든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그것의 습득은 비슷한 과정과 방법이라는 것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국어의 경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습득할 수 있었는데도 외국어의 경우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력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외국어와 모국어의 습득 방법이 달라서가 아니라 외국어의 교육방법이나 시기에 있어서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에 따라 외국어 교육을 모국어 습득기의 외국어 교육과 모국어 습득기 이후의 외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그 교육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4.2.1 모국어습득기의 외국어 교육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습득하는 외국어는 모국어와 전혀 다른 언어가 아닌 또 하나의 모국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국어의 경우 그 환경이 24시간 모국어가 행해지는 환경이다. 그러나 아무리 일찍 시작하는 외국어습득이라 해도 그 환경에 있어서는 모국어에 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모국어의 경우 별다르게 가르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가르쳤다면 때때로 잘못된 단어나 말을 별생각 없이 고쳐 주는 정도 일 것이다. 바로 이점이 외국어를 가르치는 데에도 적용해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해 모국어를 습득할 때 거의 가르치지 않았던 것처럼 외국어의 경우에도 가르치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르친다면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과 같은 분위기 조건을 만들어 주는 정도가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시기에 외국어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아직은 어느 것이 모국어이고 어느 것이 외국어인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모국어조차도 완성되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을 보면 무수히 많은 언어자료가 전혀 무질서하게 아이에게 다가온다. 물론 아이를 이해시키고 아이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도 담지 않은 그런 언어자료이다. 다시 말해 어쨌면 아이와는 무관하게 세상에서 무심히 흐르는 말들일 것이다.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자료는 과연 몇 개나 되겠는가?

외국어를 가르칠 때에도 그와 같은 모국어습득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인 것이다. 풍부한 언어자료를 아이의 주위에 늘 머물게 하면 아이는 모국어를 습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천적으로 갖고있는 언어습득 장치를 가동하여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언어를 아무런 편견 없이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⁷⁾

아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의 주위에 습득시키고자 하는 외국어가 늘 머물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머무는 언어는 아이가 관심이 있을 수준의 것이라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자신의 관심과 일치할 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경조성에 노력하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 외국어를

7) 우리는 제주도의 어느 중학생이 영어를 완벽하게 습득했다는 보도를 잘 알고 있다. 그 아이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좋았던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이가 영어를 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로 대사가 나오는, 아이가 재미 있어할 수 있는 수준의 비디오를 많이 빌려주어 시청할 수 있게 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는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늘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아이의 동생은 일본어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한다. 이는 일본 NHK를 꾸준히 시청한 결과라고 한다.

습득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아무런 순서나 정리 없이 무질서하게 아이에게 다가온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와 같은 환경이 언어를 습득하는 최적의 환경이 아닐까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아이에게 모국어를 가르쳤는가? 아니면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모국어를 가르치려는 시도를 하는가? 그리고 만일 그와 같은 시도를 했었다면 과연 꾸준히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모국어 교육을 진행했는가? 아마도 대다수의 어른들은 자녀들의 모국어 습득에 무관심했을 것이다. 즉 자신들이 아이 옆에서 이야기할 때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에 전혀 아이의 언어습득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는 아이가 모국어를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습득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이에게는 무심한 언어자료 그것을 통한 아이의 모국어 습득은 쉬웠을까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마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또한 그와 같은 어찌면 아이에게는 무관한 언어자료의 주입이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데 용이한 것이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국어의 습득과는 달리 아무리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습득하더라도 외국어의 습득에는 이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 실령 거의 아무런 지도를 하지 않고 자료만을 선택하여 아이에게 들려 준다하더라도 외국어 자료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아이에게 제시되는 자료는 모국어의 습득에 제시되는 무질서가 아닌 잘 정리되고 계획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이가 좀더 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일 것이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과 같은 환경의 조성 그것은 아마도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언제든지 외국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 우선 비디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만화라든가 아이가 흥미를 가질만한 프로를 아이에게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요즘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아이가 외국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자료를 활용하면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조성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외국어의 교육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모국어의 습득이 듣는 과정을 통해 말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듯이 외국어의 경우에도 환경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환경과 같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차폐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모국어와 외국어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2.2 모국어 습득기 이후의 외국어 교육

인지주의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언어습득 장치는 모국어 습득기를 넘긴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까? 완전히 퇴화하여 전혀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가? 아니면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 만일 그 기능이 완전히 회복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지도해야 하는가?

모국어 습득기를 넘긴 사람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열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왕성했던 언어습득 장치의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결과 언어자료를 통해 스스로 분석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러나 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 때문에 이해력은 월등히 향상되어 있다.

이 시기의 외국어 교육은 상기와 같은 여러 특징들을 잘 살피 그것들을 이용하는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인지주의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언어습득 장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언어에 관한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자극-반응-강화를 통한 언어습득 과정을 눈여겨보기도 하다. 즉 집중적으로 언어적인 자극을 주어 많은 문장을 암기하게 하여 문장의 구조를 터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단순히 문장을 암기하고 그 구조를 터득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완벽한 언어습득이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비록 인지주의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언어습득 장치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졌다 해도 이해력은 현저하게 향상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를 이용하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주의 언어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습득 장치를 통해 수많은 주위의 언어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지식 즉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갖게 된다고 한다. 즉 소리의 체계에 대한 지식, 단어들의 의미에 대한 지식, 언어에 대한 창조적인 지식, 문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식 등이다. 그리고 언어능력은 약간의 가감을 통해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으로 이어진다. 일반 언어학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 속에서 언어능력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해 왔다. 소리의 체계에 대한 지식으로 음성, 음운론이 그것이며,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지식으로 의미론이, 또한 언어의 창조적인 지식으로 구문론 등 여러 언어학 분야에서 인간의 언어능력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연구는 진행되어있다.

모국어 습득기에 외국어를 동시에 교육할 경우에는 교육자로서 개입할 부분은 언어자료의 입력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언어습득 장치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시점에서는 언어습득 장치를 통과하여 나온 언어능력 부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무엇을 가지고 개입할 것인가? 모국어 습득기에 했던 것처럼 외국어 자료를 가지고 개입할 것인가? 이미 그 시기는 지나 버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언어자료를 입력해 준다해도 언어습득장치의 쇠퇴로 그것을 분석, 정리하여 언어능력화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어학에서 이론 업적을 동원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가는데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수많은 자료를 언어습득장치를 통하여 분석 정리하여 언어능력화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취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온 규칙들은 인간의 언어능력과 같거나 아니면 유사한 규칙들 일 것이며, 유사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학의 성과를 이용하여 모국어 습득기를 지나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외국어를 가르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은 이미 퇴화된 언어습득 장치에도 자극을 주어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외국어의 습득속도도 가속이 붙어 아주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이 될 것이다.

5. 결 론

한 언어의 습득은 언제나 언어의 네 기능 중에 듣기 과정에서 출발한다. 그

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언어지식을 생성하여 언어능력을 완성하게 되어 말을 하게 되고 계속되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통해 보다 완벽한 언어능력을 가다듬는다. 또한 이와 같은 능력을 토대로 철자를 읽혀 글을 읽게 되고 최종적으로 쓰기 단계로 끝을 맺는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과정이 출발하는 시점은 다르지만 한번 출발하면 끝까지 함께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어의 네 기능을 외국어에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그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외국어를 교육하여 동시에 습득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모국어를 습득할 때에 주어지는 환경을 그대로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이 시기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교육하려 한다면 오히려 아이의 외국어 습득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필요한 것은 모국어의 습득 환경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제시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난이도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를 지나 옛날처럼 중학교에서나 외국어를 습득하려고 시작한다면 상황이 다르므로 그 교육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언어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시기는 언어습득장치의 기능이 약화된 반면에 경험 등으로 인한 지식의 축적으로 이해력은 향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는 스스로 만들었을 여러 규칙들을 언어학적 성과물을 참조하여 직접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도하면 퇴화된 언어습득 장치도 자극을 받아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되살아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어학습의 성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이도. 1996. 모국어습득과 외국어학습. 한국문화사
- 성일호. 1993. "문화교육이 외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영어영문학 16집. 영어영문학회 전복지부.
- 이덕만. 1995.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재에 관한 연구," 언어학3권. 대한언어학회.
- 이계순. 1997. 영어교육. 개문사.
- _____. 1970. '언어교육에 있어서의 competence와 performance' 언어교육 11-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83.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개선방안' 영어교육 26 한국영어교육학회.
- Carroll, John B. 1953. The Study of Langua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Mouton.
- _____. 1965. *Aspects of Theory of Syntax*. MIT Press
- Cook, W. A., S. J. 1969. *Introduction to Tagmemic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Curtiss, S. 1977. *Genie: a psycholinguistic study of a modern-day "wild child"*. New York: Academic Press
- Dennis, M. and Whitaker, H. A. 1977. Hemispheric equipotentiality a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development and neurological theory* 93-106 Academic Press in Segalowitz, S. J. and Gruber, F. A. eds.
- Kennedy, G. 1973. 'Conditions for language learning,' in J. W. Oller and J.C. Richards (eds) *Focus on the learner*. Newbury House.
- Newmrk, I. and Reibel, D. A. 1972. Necessity and sufficiency in language learning. *Readings in applied transformational grammar* 220-44 In Lester, M. ed.
- Sapir, E. 1949. *Language and Environment*. Sel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Mandelbaum
- Skinner, B. F. 1957. *Verbal Behavior*.: Appleton Century-Crofts.
- Sorenson, A. 1967. 'Multilingualism in the northwest Amazon,' *American Anthropologist*, 69.
- Stevick, E. W. 1974. 'Review of teaching foreign language in the schools: the silent way, *TESOL Quarterly* 8-3.
- Swain, M. 1971. 'Bilingualism monolingualism and code acqui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Child Language Conference, Chicago.
- Macnamara, J. 1975. 'The Foreign Language-Second Language Distinction.' *TESL Reporter* 8.2. Laie, Hawaii. winter.